

파랑새는 있다

이창진/의학신문, 일간보사 기자



요즘 TV를 보면 각 방송사마다 성(性)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TV 속의 — 新 풍속도를 자아내고 있다.

얼마전 모(某) 방송사에서 성 전문 여성 강사를 내세워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속속 등장한 성 프로그램들은 과거 제한적이고 다소 경직된 내용에서 일반인의 대화형식과 전문의들을 등장시켜가며 친근감 있게 시청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듯하다.

이같은 성 프로그램의 이면에 있는 민영방송의 상업성이라는 부분을 배제할 순 없으나 공중파를 통해 현대 사회의 그늘에 가려있던 성 문제를 국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공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리라 여겨진다.

또 과거 연예인과 성교육 강사가 진행에 주를 이뤘던 반면, 이제는 양·한방 의료진까지 출연시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며 일반인과 의료진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다.

더욱이 계층간 연령간의 격차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실태를 감안할 때 성 프로그램은 세대를 초월한 만인의 공통된 화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 역할론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요사이 방송사들의 성 관련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는 듯 해 우려감을 감출 수 없다.

즉, 초기에는 성에 관한 진지한 토론과 내용을 담아 국민들의 성의식 전환에 일조하고 있었으나 방송의 횡수를 거듭할수록 방송시간 시청률 경쟁과 차별화 등을 내세우며 또 다시 말초적인 입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공중파의 특성상, 같은 형식에 시청자가 금방 식상해 하는 형식의 다회성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를 자극적인 재담으로만 치부하기 보다는 초기 보여준 형식파괴와 실속있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들 성 프로그램의 대상이 기존 청소년의 성 문제에서 중·장년층의 부부관계에만 치중하고 있어 이들 프로 모두가 공중파상의 '부부클리닉'임을 자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과연 청소년의 성에 대한 사회적인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지금도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10대의 강간과 폭행 등 성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인들이 그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듯 해 아쉬움이 남는다.

10대의 성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교육기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생각해보면 공중파들이 이들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표출할 때라고 여겨진다.

청소년의 성문제는 곧 우리 사회의 성문제와 직결된다는 면에서 이들에 대한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성인들의 성 문제가 가볍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불손한(?) 생각은 아니다.

다만, 이직도 유교사회의 윤리속에 갇혀있는 성담론을 이제는 청소년을 시작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건강한 성 문화 정착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파랑새'이기 때문이다.